2장,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세례와 불세례의 기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기본 과정이 영적전쟁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살펴보시고 확인하십시오.

1. 물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이며,
자기 죄를 회개한 자에게 허락한 양식입니다.

물세례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자가 죄 속에 뒹굴던 삶을 이제는 물속에 장사지내며, 죄악된 삶에 죽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7절)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물을 사용하여 세례를 주는 물세례'가 '자기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는 증표'로 허락된 것으로써,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죄악에 찌든 몸이 물 속에 들어가 죽고, 회개의 심령으로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새로 살 사람으로 나오는 예식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예

식이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샤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3)

이렇듯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31절) 에서도,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 reason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revealed to Israel’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눅 1:76-77)’ 했던, 그러나 평생을 광야에서 지낸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아, 저 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오직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죄의 산을 낮추어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34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 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2.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한은 물세례를 거치고 회개한 자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을 때, 그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고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14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 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 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 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살아 나아감으로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세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최선은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세례 요한(혹, 회개 요한)도 물세례의 사건이 단순히 자신의 죄 값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의로움과 선함으로 마음을 돌이키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돌이킴' 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바라봄' 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그 열매로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인간의 최선, 즉 회개의 삶은 마땅히 행

하여야 할 도리일 뿐이지, 천상의 것을 대변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세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위한 기본적인 마음밭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물세례의 목적이자 이유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피값'을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세례 요한, 즉 회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그의 평생의 외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3.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 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와같이 세례 요한은 물을 사용하여 세례를 주는 물세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물세례만으로 구원을 받거나, 물세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고 성령세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세례는 회개한 자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의 중심을 보시고, 허락하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4.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인간의 최선인 회개이후의 물세례의 사건은 하나님의 최선인 성령세례의 사건과 합하여,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의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이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생명을 걸고 부르짖으신 것입니다.(요 14:6)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중 당대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 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39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 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에 나온 '저희' 들은 3년 반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며, 물세례를 이미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거치지 않으셨으므로, 제자들도 이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엔, 아무리 성경을(구약을) 연구하고, 공부한 선생 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5.물세례(회개)와 성령(불)세례는 분명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은,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는 외침을 듣고, 회개 의 삶의 열매를 맺은 이후에도 반드시 받아야 했던 세례입니다.

6. 우리에게 '개인의 영성'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영성' 만이 있을 뿐입니다.

즉, 회개후 삶이 바뀌고 나아졌다해서 나아진 삶으로 저절로 성령을 얻는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 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5절-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인의 영성'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없이, 개인의 노력과 영적인 훈련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만이 있을 뿐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의도 안에 있는 주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탄은 어릴 때부터 물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에게 '이제 되었으니, 잘 믿고,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 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리고 죄스러움을 느낄 때마다 회개를 하겠지요. 그러나 회개를 하면 할수록 곤고한 죄책감에 자꾸 눌리며,

결국은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니 아무도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최선' 인 '회개' 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물' 인 '성령' 을 구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실제를 바라보고, 진리를 알았으니,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후회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신 후, 그의 인도 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16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 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 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예수님은 성령이 없었던 제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인 안식 후 첫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7."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

로 세례를 받으리라....성령을 받으라"

다시 설명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며,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던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물세례를 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반드시 또 받아야할 세례가 바로 불세례, 즉 성령세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22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쉬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약속 하신대로, 부활 후 사십일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세례를 받아야할 일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9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

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약속의 성령이 없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정치적 쿠데타의 주인공으로만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키신 후에, 본 인들이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시키시는 때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히 이야기하셨던 '성령의 역사' 에 대해 전혀 이해와 관심이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 많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으며, 바야흐로 오순절날이 이르자 저희가 다 같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또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던 성령세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2절- 4절 중반)"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건을 바라보며 수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또는 의심하며, 혼란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을 받은 자 중의 한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들을 무릎쓰고 베드로가 외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였고,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상기하게 하였으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들의 죄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였습니다.

물로써 씻을 수 없는 그들의 엄청난 죄를, 아들의 영원한 피로써 씻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을 듣고 괴로워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초반-33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던 모든 자가 마음의 바닥까지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괴로워할때 성령충만한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은 자들 누구나,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 자녀

들과,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 부르시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8절초반-39절

베드로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께 죄사함(물세례)을 받고 성령세례(불세례)를 구하면, 앞으로 마지막 날 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지금 구원을 받으라 고 호소합니다. 그 결과로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을 통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변치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을.. 지속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며, 물으십니다.

8.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8장 14절-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만 받을 뿐이러라"

위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물세례는 받았으나, 성령세례는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고 기록되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다른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이라며, 그것만으로는 온전치 못하기에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약속의 성령

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음 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야할 사실중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중 수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 중 제일 중요한 하나를 간과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물세례, 불세례의 약속은, 즉 하나님께서 '회개' 와 '성령세례' 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하심을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퍼지게 해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 중,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스라엘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들과 나라들,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물세례, 불세례, 회개와 성령세례를 통해 얻게 하시겠다고 설명하시며,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이방인들)을 속되다(더럽다)하지말라고(행10:15) 힌트를 주십니다. 이 환상을 속으로 '의심' 하고 있던 베드로를 결국 이방인 중 의인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고넬료의 가정으 로 인도하시고 이번엔, 물세례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세례를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즉, 사람이 물을 뿌리거나 물에 넣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벌써 회개한 자는 성령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직접 시청각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 장 47절에서도 회개한 고넬료와 식구들에게 임했던 불세례(성령세례)이후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일찍부터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배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던 '아볼로' 란 자도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에 대해서 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바울의 동지였던 부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타나 '하나님의 도(물세례, 불세례-예수님이 오신 이유)' 를 온전히 전했으며,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하시고, 요한의 세례(물세례)밖에 알지 못한다는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령세례'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성령이 없는 가르침은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가르침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없어져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감정이나 선입견도 두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 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사탄이 두려움을 줘서 성령세례 를 받지 못하게 하기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그 어느 누구도 억압하거나 누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유케 하며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세례의 육신적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세례를 구할 때에

본 인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시되 '진실성' 이 있는지 되물으시고 구하 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셨다면...

성령세례이후 내가 '예수님의 증인 이냐, 아니냐' 를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한번도 하나님의 성령을 진지하게 구하신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기도하시는 맘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십시요.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하는 마음의 근본을 놓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 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모든 죄,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제 안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해 주시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행동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기사 와 이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신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